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전매체> 3. 12(일) 20:00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오지영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박승호 (044-204-7556)
			주무관	백준우 (044-204-7554)

창업기업(스타트업) 한국(코리아),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길이 열린다

- 이영 장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에서도 광폭 행보 -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비반(Biban) 참석을 계기로 사우디 관계부처 장관들 연쇄 회동하며, 고위급 협력 교류(네크워크) 강화

□ '제2의 중동붐'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인 '비반(Biban) 2023*'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과 장관이 한 조(원팀)로 뛰며 창업기업(스타트업) 한국(코리아)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문을 함께 두드렸다.

* (기간) (현지시간) 3.9(목)~13(월), (장소) 사우디 리야드(Riyadh Front Exhibition and Conference)

이영 장관은 올해 1월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두바이 전세계(글로벌) 사업(비즈니스) 센터(GBC) 개소식과 디엠아이(DMI)* 하셔 알막툼 회장과의 양자면담을 당일 일정으로 숨 가쁘게 마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였으며,

* 디엠아이(Dubai Media Incorporated), 두바이 정부 공식 매체(미디어) 기업, 방송·신문 등 다수 경로(채널) 보유

비반(Biban) 2023에 참석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만나 고위급 협력 교류(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직접 한국 기업관으로 안내하여 소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사원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였다.

* 상무부,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 산업자원부, 교통부, 순례부, 정보통신부

사우디 측에서도 이영 장관의 도착에 맞춰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eini) 중소기업청장이 공항으로 영접을 나와 즉석에서 환담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에 앞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까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상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환영인사와 함께 행사장을 직접 소개해 주는 등 극진한 환대를 제공하여 한층 더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알 까사비 상무부 장관과는 이영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별도의 차담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에는 함께 비반(Biban) 행사장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이때 이영 장관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행사에 참여한 10개 한국기업 모두가 상무부 장관에게 기술과 제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영 장관은 작년 11월 컴업(COMEUP) 2022에서 처음 만난 이후, 다보스에서 재회하여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 의기투합한 바 있는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도 12일 다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이어서 사우디 정부 창업기업(스타트업) 보육기관(Garage)을 함께 방문하고, 저녁에는 알 팔레 장관의 초대로 만찬을 함께 하는 등 하루 동안 3번의 만남을 가지며 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양자회담 직후 비반(Biban)에 참여한 10개 한국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어,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 물색,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투자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영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것은 저에 대한 환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사우디에서 반기는 것이고, 이것이 창업기업(스타트업) 한국(코리아)의 위상”이라며,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에 도전하여 수출과 투자유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우디 투자부, 상무부 등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맑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비반(Biban)에 참석한 카타르 MBK Holding 회장인 쉐이크 만수르 빈 칼리파 알타니(Sheikh Mansoor Bin Khalifa Al-Thani)와도 만나, 공동기금(펀드) 조성,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을 개발해 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